

어농목장

일의 능률, 아이디어 담긴 시설에서 나온다



안희경
(농수축산신문 차장)

2009년 깨끗한목장 가꾸기 운동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어농목장은 당시 모든 심사위원들에게 ‘아이디어 맨이 꾸려내는 재기발랄한 목장’으로 지목, 농장들의 문의가 이어지며 실제 이웃 목장에 직접 개발한 착유실 천장 개폐기를 설치해 줄 정도로 농가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6년후 다시 찾은 어농목장은 이제 박경양 대표에서 아들인 박승배 씨에게로 세대교체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곳곳에 빛나는 아이디어는 더욱 발전된 형태로 목장의 편리함을 더하고 있었다. 목장에서 찾은, 적용가능한 아이디어를 자세히 소개한다.

‘냉각기 내 세척수 오입? 우리는 이렇게 잡는다’

어농목장의 아이디어는 목장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실수를 잡거나 개선을 통해 목장주와 젖소가 편해질 수 있는 ‘생활형 아이디어’가 대부분이다.

기존의 기계에 아이디어를 더해 보다 발전된 형태로 쓰이는 것이 많은데 세척수 오입을 막는 장치는 그러한 방식에서 시작됐다. 착유가 끝난 후 호스를 빼지 않고 세척수를 바로 투입해 몇 번의 실수를 했던 박경양 대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세척수 버튼을 누르려면 호스를 교체해야 누를 수 있도록 별도의 장치를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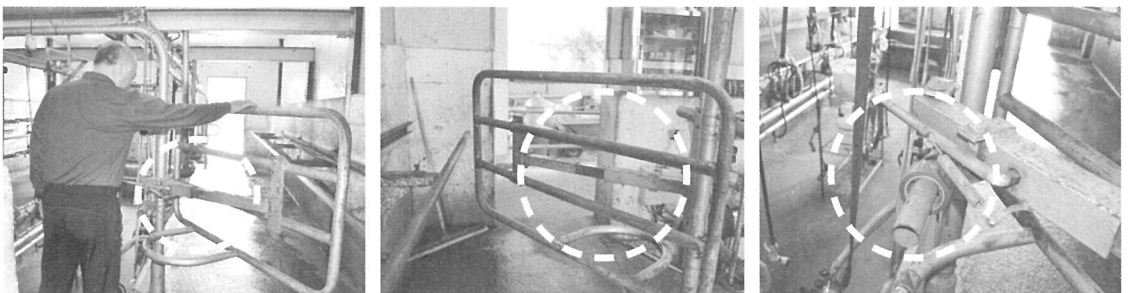
냉각기 자동잠금 장치

냉각기를 잠그는 것을 깜빡하고 우유를 짜서 우유가 냉각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흘러 나간 경험이 있다면 주목하자. 세척 후 냉각기 잠그는 것을 자주 깜빡했던 실수를 없애기 위해 고안한 냉각기 자동잠금 장치는 박경양 대표가 직접 땀질을 하고 설계해서 만들었다.



착유실 자동잠금장치

소가 착유실에 들어오고 나갈 때의 자동잠금장치도 박 대표가 손수 만든 장치다.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는 세세한 장치들이 돋보인다.



안전벨트 활용한 ‘자동탈락기’

착유실에서 눈에 띄는 자동탈락기는 차량용 안전벨트를 활용해 박 대표가 직접 만들었다. 안전벨트를 잡아당기면 걸려서 움직이지 않는다는데서 착안해 착유시에는 잡아당겨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당겨올려 고정 시켜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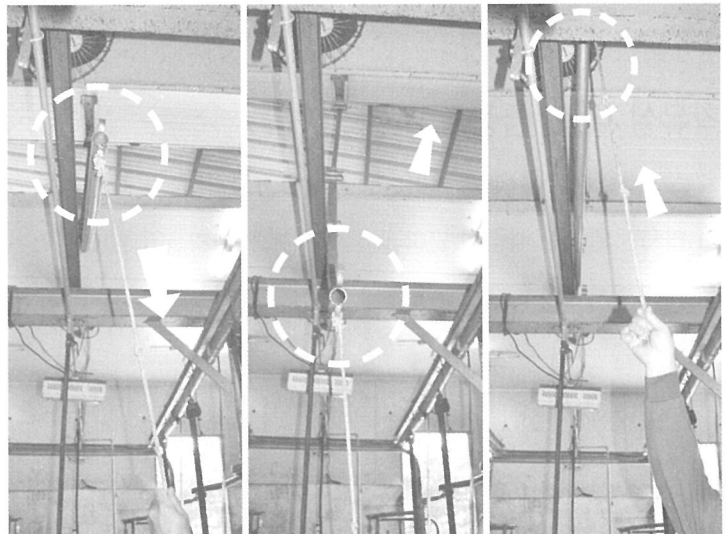
자동탈락기 제품들이 상당히 고가인 것을 생각하면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가 목장의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장치는 주변 농가들에게도 인기가 좋아 안성에서 찾아온 한 농가는 이 장치를 직접 설치했다고.



착유기에 안전벨트를 달아서 착유시에는 잡아당겨 사용,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당겨올려 고정시킨다.

착유실 천장 개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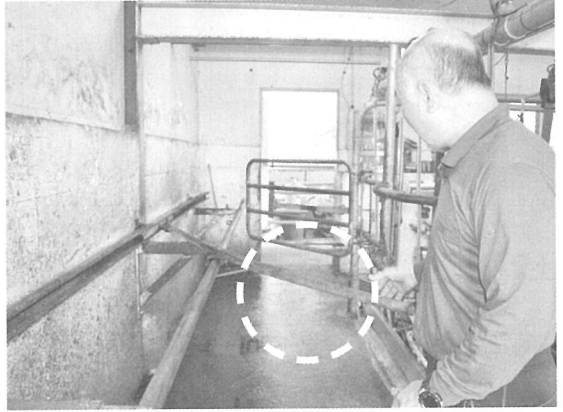
착유실에 자연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싶은 것은 모든 낙농가들의 바람. 송풍기를 설치해봐도 착유실안의 공기가 순환되지 않아 고민인 농가라면 주목해 보자. 박 대표가 직접 고안해 설치한 착유실 천장 개폐기는 파이프와 줄을 이어 천장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다. 착유실내 공기는 빠주고 평소엔 문을 닫아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파이프에 연결된 줄을 당기면 착유실 천장이 열리고, 놓으면 닫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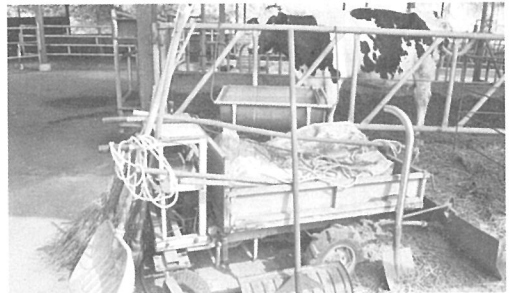
착유장 소 마릿수 조정기

뭐라고 불러야 할까. 착유장에 젖소가 한 두마리일 때도 착유중인 젖소들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안한 장치다. 파이프를 연결하고 수동으로 잡아당겨 칸막이를 설정, 젖소의 마릿수와 상관없이 쾌적한 착유를 할 수 있다.



분뇨 전문 미니 트랙터

대기실이나 좁은 곳의 분뇨도 치울 수 있는 미니 트랙터는 삽으로 일일이 분뇨를 치워야 하는 고됨에서 벗어나, 장치를 사용해 좁은 곳의 분뇨까지 쉽게 치울 수 있도록 고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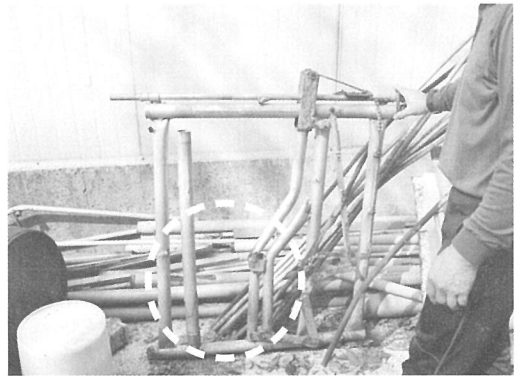
착유실 문 잠금장치

착유실에서 대기장으로 통하는 곳에는 벽에 구멍을 뚫어 잠금장치를 만들었다. 기존의 잠금장치들이 뽕족해 소들이 오가면서 옆구리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 동그란 파이프가 벽 안으로 완전히 숨도록 고안했다. 또한 위에서 내려 구멍에 걸쇠를 거는 방식으로 고정장치도 설치해 소들이 머리로 쉽게 열 수 없도록 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젖소를 아끼는 마음이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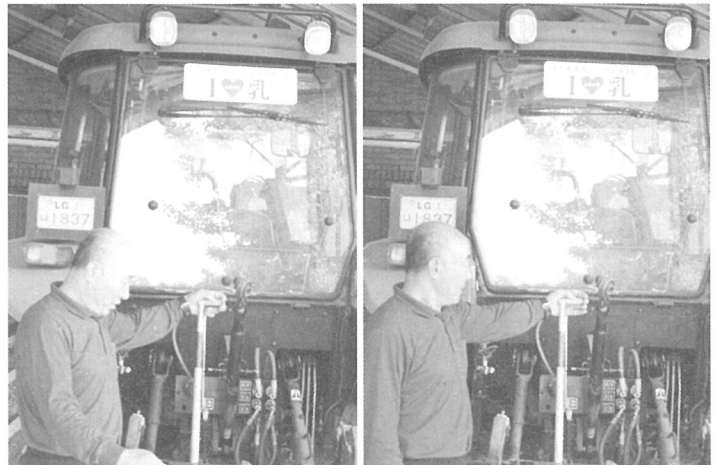
소리가 안나는 ‘자동목걸이’

특허까지 받은 이 장치는 젓소가 사료를 먹는 동안 나는 쇿소리가 싫어서 개발하게 됐다. 고정장치를 설치해 낮에는 열려있는 상태에서 젓소가 사료를 먹고 머리를 빼도 ‘덜컹’ 하는 쇿소리가 나지 않는다. 잠기고 열리는 장치는 기존 목걸이와 동일하지만 소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고안했다.



트레일러 자동 연결장치

장차산업인 낙농업에서 목장마다 거대한 장비 두 세대쯤은 기본. 그러나 어농목장은 트랙터 한 대로 모든 일을 다 한다. 트레일러 등의 연결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박 대표가 직접 고안. 장비를 연결할 때마다 몇 번을 왔다갔다 하던 불편을 덜었다.



대기장이었다가 공터였다가 ‘마법문’

공간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이 장치는 평소에는 접어 두어 공터나 작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착유시에는 대기장까지 펴서 대기장을 확장할 수 있다.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착유시를 제외하면 불필요한 대기장을 편하게 쓸 수 있다. ㉠



인터뷰



박경양
어농목장 대표

1980년대 인기를 끌던 유명한 외화의 주인공이었던 ‘맥가이버’는 맨손으로 폭파 장치를 만들기도 하고 갖가지 장치를 고안해 위험을 빠져나오곤 했다. 우리 낙농가들 중에도 손재주 좋고 머리가 비상한 맥가이버가 있었다. 2009년 우수목장 사례집을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진 맥가이버는 바로 박경양 어농목장 대표.

넘치는 아이디어와 손재주, 척척 실행에 옮기는 실천력으로 본인의 목장에 딱 맞는 생활형 아이디어 제품들을 쏟아냈다.

“목장을 하면서 내가 편하고 소가 편한 방법이 뭘까를 늘 고민했죠. 원래도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목장에 필요하고 소가 편해진다니 일석이조였죠.”

지금은 아들에게 목장을 물려주고 캠핑으로 여가를 보낸다는 박 대표는 여전히 목장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넘치는 천상 ‘낙농인’이다.

“기자재 업체들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더욱 편리한 장치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왜 노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낙농을 하는 사람이 장치를 만들었다면 더욱 살아있는 기자재들이 나올 텐데 하구요. 주위의 농가들이 직접 와서 보고 자기 목장에 설치하기도 하고 또 설치를 부탁하기도 하는 게 재미있죠. 누구에게나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허를 받아둔 장비도 여럿. 그는 앞으로도 목장의 ‘맥가이버’로 젖소와 목장을 위해 일할 생각이다. ㉠